

남궁민 is back!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유쾌한 웃음!
짜릿한 카타르시스!

9월 23일(금) 첫 방송

안방극장에 다시 한번 남궁민 신드롬을 일으킬 2022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 <천원짜리 변호사>가 9월 23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현, 신중훈)는 수임료는 단돈 천 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갯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뺄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뺨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이다. 연기력과 흥행 파워를 모두 지닌 '민보남궁(민고 보는 남궁민)' 남궁민이 <스토브리그> 신드롬 이후 SBS에서 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지은-최대훈-이덕화-박진우에 이르기까지, 찰진 재미를 보장하는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해 기대감을 높인다.

남궁민은 천 원짜리 한 장으로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최강의 법조 히어로 '천지훈' 역을 맡아 또 하나의 인생개 경신을 예고했다. 극중 그는 현란한 언변으로 갑질-진상을 향해 사이드 응징을 펼칠 예정이다.

김지은은 법조계 로열패밀리 출신으로 스펙은 화려하고 미래는 찬란한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 검사시보 '백마리' 역을 맡았다. 도도하고 자존감이 넘쳐흐르던 백마리는 천변을 만나면서 순탄했던 인생에 급브레이크가 걸린다.

최대훈은 강남 키드, 금수저, 이너 서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견고하길 바라는 법조계 로열패밀리 출신의 검사 '서민혁' 역을 맡았다. 2년간의 미국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서민혁의 다음 인생 목표는 일편단심 짝사랑하는 백마리와 혼인을 통해 로펌 '백'을 '백&서'로 바꾸는 것이다. 프로페셔널한 검사로서의 모습 뒤 일거수일투족을 아빠와 의논하는 철부지의 면모를 가진 서민혁은 검사 동기였던 천지훈을 만나기만 하면 '유리 멘탈'이 되어버리는 억울한 관계성으로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덕화는 극중 백마리의 할아버지이자 대형 로펌 '백'을 설립한 대표변호사 '백현무' 역을 맡았다. 백현무는 '변호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로펌 '백'에 엘리트 변호사들이 수도룩한데도 천변을 탐낸다. 손녀인 백마리를 천변 곁으로 보내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법조계 거목임에도 불구하고 권위 의식 없는 '멋진 시니어'이자, 손녀딸과 아옹다옹하는 친구 같은 할아버지이고, 나아가 천지훈과 백마리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한다.

박진우는 월급은 고사하고 제 돈 쓰고, 제 차 몰면서 천변 뒤통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법률 사무소 '사무장' 역을 맡았다. 이름처럼 사무장이 천직인 그는 천변과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찰떡궁합 콤비다.

불의를 응징하는 정의구현 사이드 스토리로 울가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천원짜리 변호사>는 9월 23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퍼포먼스 합창 배틀 오디션’ **싱포골드** 9월 25일(일) 첫 방송

합창과 어우러진 퍼포먼스에 휴일 저녁 ‘눈 호강, 귀 호강’



국내 최초 ‘퍼포먼스 합창 배틀 오디션’ <싱포골드>(연출: 정익승)가 9월 25일(일) 첫 방송된다.

퍼포먼스 합창이란 합창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주는 종합 장르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디션의 명가 SBS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싱포골드>는 기존의 정적인 합창 예능과 오디션에서 보여준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역동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박진영, 김형석, 한가인, 리아킴, 이무진 5인방이 <싱포골드>의 화려한 MC 라인업을 완성했다. 박진영과 김형석은 음악적인 부분, 리아킴은 퍼포먼스 부분의 심사를 맡고, 한가인과 이무진은 참가팀 곁에서 그들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낼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들은 의외의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케미를 선보여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갖게 했다.

<싱포골드>의 우승팀은 국가대표 ‘K-합창단’으로서 국제 합창 월드컵에 정식 도전한다. 따라서 이들의 감동적인 성장 도전기 역시 주목할 포인트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진행한 첫 녹화에서는 7세부터 75세까지 전국 100여 개 합창단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와 다양한 사연과 열정 가득한 무대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가운데 5MC 전원이 눈물을 보이며 기립박수를 보낸 엄청난 무대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5MC를 올린 데 이어 세계를 감동으로 물들일 국가대표 ‘K-합창단’의 정체는 9월 25일(일) 첫 방송되는 <싱포골드>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날 첫 방송은 저녁 6시, 120분 특별 확대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김병만×배정남×박군 **공생의 법칙 2** 9월 22일(목) 첫 방송

글로벌로 확장된 토종 생태계 수호기



국내 최초 ‘생태계 수호 버라이어티’ <공생의 법칙>(연출: 김진호)이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다. 시즌 2에서는 ‘글로벌 챌린지’를 테마로, 해외로 스케일을 확장해 토종 생태계 수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공생의 법칙>은 생태계 교란종이 생겨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화로운 공생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친환경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에는 모든 생명이 각자 제자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사는 ‘공생의 법칙’을 지킬 책임과 의무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와 재미를 동시에 안기며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불사하며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던 김병만, 배정남, 박군이 시즌 2에서도 토종 생태계 수호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선다. 3인방의 열정과 비례해 더욱 강력해진 글로벌 교란종의 습격에 세 사람은 육탄전까지 불사하며 생태계 균형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한층 커진 스케일을 배경으로, 김병만, 배정남, 박군이 보여줄 활약에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ESG특공대’는 선진국은 어떻게 생태계 교란종에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3인방은 미국 일리노이주를 찾아 오대호 생태계 파괴 주범인 ‘침입성 잉어’ 대처 사례 탐구에 나선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 잉어 낚시 대회에 참가해 조화와 공생을 위한 확실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배스 식용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 이연복, 정호영과 함께한 ‘2022 공생 ESG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공생의 법칙>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뒀다.

조화로운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 예능 프로그램 <공생의 법칙 2>는 9월 22일(목)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그알〉, 〈아침창〉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9월 5일(월) 여의도 KBS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 49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가 작품상을 수상했다. 시사보도TV 부문 수상작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연출: 김영태, 문치영)은 사고사로 종결될 뻔한 사

건을 파헤쳐 방송과 제보, 시청자들의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했다. 연예오락 라디오 부문 수상작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꾸꾸배 짱구짱아 노래자랑’(연출: 오지영)은 프로그램 최장수 코너인 [짱구는 못 말려]에 소개됐던 어린이들이

노래자랑을 펼친 특집으로, 순수한 아이들의 노래자랑이 큰 화제를 낳았다.

한편, 개인상 부문은 5명(팀)이 수상했다.

프로듀서 부문 개인상을 수상한 장경수 PD는 1년간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하며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를 수준 높은 다큐로 완성시켰다.

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 부문 개인상을 수상한 도준우 PD는 유튜브 〈그알〉 채널과 SBS 교양 공식채널 〈달리〉를 통해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의 디지털플랫폼 확장의 본모습을 보여줬다. 영상촬영 부문 개인상을 수상한 SBS A&T 박종기 촬영감독은 자연다큐멘터리 〈멍키 시티〉에서 동물에게 신선한 영상 구도를 시도하며 드라마적 문법을 적용시켜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였다.

미술 부문 개인상을 받은 SBS A&T 김운성 미술감독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취적이고 새로운 미술세트로 사건현장을 생생하게 재연하여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시켰다. 작가 부문 개인상은 〈고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작가 진에게 돌아갔다. 몰입감 넘치는 구성으로 스토리텔링에 혁신을 일으키며 방송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킨 공이다.



“〈그알〉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다”

- 문치영(교양3CP소속), 김영태(교양D스튜디오)

2020년 10월 17일에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 사건’(연출: 김영태)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2년 3월 30일 드디어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공개 수배령이 떨어졌고, 〈그알〉에서는 4월 2일 ‘가평계곡 익사 사건’을 재방송한 후 4월 23일에 2020년에 방송하지 못한 이야기와 후속 취재를 모아 ‘이은해, 조현수 775일간의 추적’(연출: 문치영)을 방송했다. 함께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두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전화해 보니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느껴졌다.

김: 〈그알〉팀에 있을 때 문 선배와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전에 문 선배가 연출한 〈궁금한 이야기 Y〉의 어느 한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범죄 사건 관련자를 만나러 가는데 빵을 들고 가고, 아무런 편견이나 두려움 없이 친근하게 대하더라. 그 인간미에 반했고, 많이 배웠다. 〈그알〉팀에서 비로소 만나게 됐는데, 같이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먼저 1년 반 만에 〈그알〉팀을 탈출해 버리고 말았다.

문: “PD는 외로운 직업”이라는 말을 선배들에게 늘 듣고 살았다. 특히 〈그알〉팀은 PD 8명이 각자 아이템을 취재하는 형식이라 함께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향도 정반대인 후배 영태에게 위로를 받았고, 마음을 털어냈다. 정도 많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친구다. 2020년 어느 날 영태가 지나가다 경찰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확신으로 인해 얼굴이 밝게 빛나던 게 기억난다. 그게 가평계곡 사건이었고, 방송 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연출자의 의지가 빛을 발한 경우다. 올해 그들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지고 후속작 얘기가 나왔을 때 저 역시 지원했고 제가 맡게 됐다. 한편으로 후배가 이미 잘 만들어놓은 작품의 후속작을 만든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다. 영태가 당시에 찍어놓은 영상들과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 열심히 취재해 놓은 걸 꼼꼼히 공부한 후 후속 취재를 하여 함께 상을 받게 됐다.

취재하면서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김: “제가 죽었다는 증거 있어요?”라는 말에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수 없는 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그 혐의까지의 과정을 방송할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인 확신은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망’으로 처리했다. 문 선배의 후속편을 보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벗겨진 채 방송이 나가는 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이 사건은 좋은 경찰을 만났고, 좋은 검사를 만났다. 첫 방송 당시에도 경찰들



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고, 방송 이후엔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공개수배까지 갔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문: 이은해-조현수 검거 두 시간 전, 그들의 도피처를 제보받아 인천광역시수사대에 알려졌다. 검거할 때 〈그알〉팀이 함께하며 취재하기로 했는데, 삼성역으로 급히 가면서 불안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광수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면 우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광수대가 먼저 도착해 검거하고 압송해버리는 바람에 그 순간을 함께할 순 없었지만, 우리가 준 제보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알〉보다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그알〉의 인기를 위협한다.

김: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하신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입에서 ‘손님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상 위기라고 하신다. 아버지가 카카오택시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그알〉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알〉이 존재해 왔고, 위기는 항상 있어왔지만 계속 변화해 가면서 〈그알〉은 지속될 것이다.

문: 요즘 사람들은 바쁘니까 짧은 것들을 본다. 한 시간에 2~3개 가볍게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끈다. 한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알〉이 유일하다. PD로서 하나의 아이템을 몇 달 동안 파야 하니 지칠 때도 있고, 아이템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 시청률이 희비를 오가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우리에게 〈그알〉이지 않나. 훼손될 수 없는 가치다.

신인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더 플레이어 K-POP 퀘스트

9월 18일(일) 첫 방송



마케팅D스튜디오가 신인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더 플레이어: K-POP 퀘스트>를 9월 18일(일) 공개한다.

<더 플레이어: K-POP 퀘스트>는 분야별 국내 최강의 아티스트들이 게임 플레이어가 되어 게임 캐릭터인 데뷔 전 그룹 '펠라즈 2'를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완성형 아이돌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다. MZ세대 감성의 '게임 & 퀘스트' 형식으로 출연진들이 직접 게임 플레이어와 캐릭터가 되어 퀘스트를 수행해 나간다. 기존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대결에서 벗어나, 데뷔를 준비하는 아이

돌의 성장 스토리와 그들의 데뷔를 향한 여정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마스터 MC로 데프콘과 아나운서 조정식이 발탁되어 재치 있는 진행을 선보인다. 또한 캐릭터들을 성장시킬 게임 플레이어로는 린, 성규(인피니트), 임현식(BTOB), 허니제이, 한해, 이든, B.B.trippin(홍재민, 정한별) 등 보컬, 랩, 댄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더 플레이어: K-POP 퀘스트>는 9월 18일(일) 밤 11시 5분 SBS를 통해 첫 방송된다.

사우기고



20년 만에 돌아온
프로그램에서 큰 상을 받다

-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연출
오지영 부장(라디오2CP소속)

2000년.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다. 여의도 국민일보 1층 카페에서 김창완 DJ와 만났다. 준비해간 CD 몇 장을 함께 듣고 시그널 음악을 골랐다. 프로그램 타이틀은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로 정했다. 입봉작이라 의욕 넘치는 젊은 PD에게 개구쟁이 DJ는 방송사고 위기를 포함한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다. 몇 년간의 수련으로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은 “라디오 생방송은 반드시 내가 그린 그림(큐시트)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 2시간의 생방송 동안, 청취자와 김창완 DJ의 티키타카는 어디로 튈지 몰랐고, PD는 그 흐름을 따르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었다.

<아침창>이 스무 살이 되어갈 무렵 다시 돌아왔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여전히 청취자도, <아침창>도 함께 나이 들었지만 철들지 않았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창완 DJ와 짱구짱아들(사연 속 꼬마 청취자들)은 죽이 잘 맞아서 어른들 몰래 놀 궁리를 했다. 제작진이 봄이니까 노래 한번 부르며 놀아보겠냐고 짱구짱아들에게 슬쩍 물었더니 많이들 보내주었다. 예쁜 노래들을 엮어서 특집으로 꾸며 청취자들과 함께했더니 그 자체로 봄날의 잔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꾸꾸배 짱구짱아 노래자랑’이라는 특집으로 <아침창>은 올해 방송대상 작품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았다. 2020년, 코로나 시국으로 청취자들에게 20주년 이벤트를 거창하게 못 했다고 자책하는 PD에게 오히려 잔칫상을 차려준 것이다.

PD가 자꾸만 월 하려고 한다고 꼭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고 멋진 이벤트가 되는 건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 주면서 청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이 놀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보면 함께 행복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같이 철이 안 들면 더 좋겠고.(단,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담당 PD의 경우에 한해서임을 밝힌다.)



SBS M&C의 마케팅이야기④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세상을 바꾸는 CEO인터뷰”

- SBS M&C AGILE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THE VC(한국 스타트업 투자데이터베이스)에는 약 6158개 사의 스타트업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기업가치 1조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꽃을 피운 스타트업도 있고, 문 닫은 스타트업들도 존재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조 9,450억 원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기업 1,000개 사를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타트업레시피에 의하면, 몇 달간 하락세를 그리던 투자 시장이 모처럼 반등하며 8월 한 달간 투자 유치는 1조 672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도 400억 많은 규모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나 여전히 K스타트업의 열기는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SBS M&C에서는 스타트업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최근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광고에 한계를 느낀 스타트업 광고주들이 TV광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베이스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검색광고, SNS 광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해 왔으나, 그 효과의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다. TV만의 커버리지 이점과 단기간 내 브랜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매력을 느낀 스타트업들이 TV광고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SBS와 SBS M&C에서는 '혁신형 광고지원

제도'를 통해 신규 스타트업 광고주들의 마케팅 활동을 돕고 있다. 그래서 SBS광고팀 & 마케팅솔루션팀과 함께 스타트업 광고주들의 마케팅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 'CEO 인터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CEO 인터뷰 상품'은 스타트업 CEO들이 자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30초 영상을 제작하여 이 영상을 광고시간대에 온에어하는 방식이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 그 중에서도 SBS기여도가 높고 미래의 중요한 광고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우선 제안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SBS를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SBS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스타트업 광고주 사이에 입소문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매주 수요일 1949SB 시간대를 '스타트업 ZONE'으로 설정하여 'CEO인터뷰'를 온에어하고, 이후 스타트업의 TV광고를 <SBS 8 뉴스> 전CM 시간대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이번엔 30초 버전이지만 마케팅솔루션팀과 함께 다양한 길이의 광고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이라는 콘셉트로 지속적인 시리즈를 구성해 나갈 생각이다.

올해 들어 신규 유치한 스타트업 '밀당PT'는 총 TV광고 예산 중 50%의 물량을 SBS-TV에 집중함과 동시에 혁신형 광고지원제도의 혜택을 경험했다. 밀당PT는 오프라인 학원과



CEO 인터뷰 상품

외를 대체할 수 있는 1:1 온택트 교육 플랫폼으로서 인강, 오프라인 학원, 고액 과외의 장점을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전히 중고생 1:1 교육이 고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자나 평범한 가정이나 똑같이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마침 공익적인 메시지를 지향하는 CEO인터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밀당PT 광고주에게 제안하고 진행이 성사되었다. 광고가 스타트업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면, CEO 인터뷰는 스타트업 CEO가 직접 브랜드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현재 CEO 인터뷰 2탄, 3탄을 제작하기 위해 스타트업 광고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되어서도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한 SBS M&C의 마케팅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